

90년대 후반까지 석유산업 완전자율화

석유정제 신규참여도 전면자유화

정부는 오는 90년대 후반까지 석유산업을 완전히 자율화하고 석유정제 신규참여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李東圭 동력자원부석유조정관은 지난 11월17일 하오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회장 李承源)주최의 석유세미나에서 「개방화 시대의 석유정책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석유산업의 자율화 확대를 통해 경쟁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오는 90년대 후반까지 3단계에 걸쳐 석유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시장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李규장이 밝힌 석유산업자율화 추진일정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오는 91년까지 국내유가구조의 국제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가구조를 개편, 원유가환율연동제를 도입하고 석유유통구조도 개편하여 풀사인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점과 주유소설립제한을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2단계로 국내정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국제유가연동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유수입을 자유화하고, 석유수출추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정유사직영 신규판매업소 설치에 대한 규제(3.14 조정명령)를 해제하고 주유소의 정유사 직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3단계로 오는 90년대 후반까지 국내유가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한편, 석유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석유정제 신규참여를 자유화하며, 석유판매업도 자유화할 계획이다.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석유산업자율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공청회를 열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석유수출입 허용범위, 정유산업 신규참여 허용시기, 석유제품가격 자율화방안등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석유산업 자율화방안과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에 趙淳서울대교수를 임명하는등 24개 부처중 20개부처장관을 경질하는 전면개각을 단행했다.

한편 李鳳瑞 동력자원부장관(사진)은 유임되었다.

주유소설치기준 완화

제한거리 「半徑」서 「走行」 기준

서울과 京畿지역의 주유소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12월9일 주유소설치 거리기준을 서울은 종전 반경 1km에서 주행거리 1km(직진 또는 우회전)로, 京畿道는 반경 2km에서 주행거리 1km로 각각 완화, 해당시도에 통보했다.

이같은 완화방침은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유소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이 예상되는 주유소는 서울시가 50~60개, 경기도는 10~20개 정도인데 지난 6월말 현재 주유소수는 서울 2백83개, 경기도는 3백99개이다.

西마두라 가스田 개발

코데코·페르타미나社와 합작

정부는 지난 12월 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역의 유전개발투자를 회수하기

전면改閣 단행

李鳳瑞등자는 유임

盧泰愚대통령은 지난 12월 5일 국무총리서리에 姜英勳 民正黨의원(전국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

위해 이 지역에 묻혀 있는 천연가스를 개발기로 확정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데코사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사와 50대50의 투자비율로 가스田을 공동개발기로 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 2천5백73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 투자액 가운데 7백20만달러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 지역의 가스田을 개발하면 오는 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동안 매년 1백44억입방피트씩 모두 2천1백60억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 1억3천1백만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경제성이 없어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판정된 서마두라유전 개발투자비 1억2천8백50만달러를 가스田개발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原油비축기지 건설 95년까지 남해안에

정부는 내년부터 95년까지 남해안에 제3원유비축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동자부는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지난 80년부터 85년까지 건설된 2개소의 원유비축기지의 비축이 거의 완료됐으며, 80년 당시 하루 50만배럴이었던 원유소비량이 최근 들어 62만배럴까지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석유파동과 국가비상시에 대비한 새로운 원유비축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새로 건설될 제3원유비축기지는 2천5백억~3천여억원의 예산으로

“정유사 유통참여 허용해야한다”

내년부터 B-C油價도 전면자유화

정유산업의 효율성제고와 석유시장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위해 정제 시설 증설규제와 석유의 수출입규제를 완화하고 정유사의 유통부문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2월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석유산업규제합리화 추진시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李福載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는 「'89석유산업규제합리화 추진시책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B-C油가격을 자유화, 우선 1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싱가포르 FOB가격과 환율을 기준으로 매달 연동가격을 고시하는 국제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B-C油에 대한 가격고시제를 전면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李박사는 또 수요구조의 경질화와 저유황화에 따라 보완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상업증류시설을 제외한 기타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앞으로 수요구조 변화에 따라 수출입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B-C油, 나프타수출추천제를 폐지하고 다른 석유제품 수출도 대폭 허용하며, 정유사의 유통부문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박사는 또한 현행 5社평균유가관리제도는 비합리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고, 사후정산제도는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정산익 기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정상적인 비용경쟁효과에는 5社 평균 원칙을 적용하되, 비정상적인 효과는 사별 처리원칙을 적용하며, 표준정제비 도입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李박사는 추가로 휘발유, 등유, 경유, LPG가격의 자유화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정유산업 신규참여완화와 관련하여 예시제 실시방안을 검토하며, 석유제품 수입제한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1천5백만~2천만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오는 95년 완공되면 우리나라의 원유비축규모는 기존 2개 기지를 포함, 현재의 3천6백만배럴에서 5천만~5천5백만배럴로 늘어나

게 된다.

디젤車에 LPG 混入 매연감소장치 연구진전

디젤자동차에 LPG(액화석유가

임가공수출原油 도입계약조건 강화

50%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

정부는 임가공수출원유의 국내잔류분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 임가공수출용원유 도입계약조건을 종전의 50%이상 수출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수출분에 대해서만 90일의 기금징수유예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한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유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석유판매업자가 유통유평매업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유제품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석유사업기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화학공업용 나프타중 부산물로 판매되는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부분은 석유사업기금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석유화학공업과 비료공업의 원료다원화추세를 반영하여 공업원료용 나프타 代替석유제품에 대해 기금을 면제하고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공급이 불가피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에 따른 손실로 수입을 기피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기금의 일부면제로 相計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源間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석탄산업중 폐광대책등 일부사업과 대체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을 보조지원하고, 에너지광물자원 및 바이오매스가 개발과 생산사업에 대해서도 융자지원해 주기로 했다.

스)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매연을 대폭 줄일수 있는 장치가 곧 실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는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디젤엔진에 LPG분사식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실험한 결과, 매연배출량은 60%, 질소산화물은 30% 가량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장치는 LPG를 흡입, 공기중에 분사시켜 엔진에 보내주는 가스

공급장치, 엔진회전속도 감지장치, 액셀페달위치 감지장치, 엔진회전속도와 액셀페달위치에 따라 컴퓨터로 LPG공급량을 조절하는 전자조절장치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그간의 실험에서 매연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각각 66%, 97% 증가하는등 역작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연구원은 이 장치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디젤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가 아주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형건물 가스사용의무화

내년 2월부터 위반하면 고발

환경청은 서울시내 대형건물 9백 33개소중 아직도 가스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2백86개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LNG를 사용토록 연료사용변경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2월1일부터 환경보존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대체를 돕기 위해 소요자금 전액을 산업은행등 3개 국책은행에서 연리 5%,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난방연료에 의한 겨울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들 대형건물에 도시가스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지금까지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계속 사용, 아황산가스, 매연등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또 정유회사에서 건설 중인 탈황시설이 준공되는 오는 91년부터는 대도시에 유탕합유 1%의 저유황B-C油를 공급 대기오염도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전기요금 평균 4.1% 인하

가정용 4.4%, 업무용 10.6%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전기요금 평균 4.1% 인하했다.

동자부는 이번 전기요금조정에서 ▲가정용은 4.4%, ▲업무용은 10.6%, ▲산업용은 2.0%, ▲농사용은 2.0% 인하였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 3월21일 3.6% 내린데 이어 이번에 4.1% 추가 인하함으로써 올들어 모두 7.6% 인하되었다.

수도권도시가스요금 인하

12월부터 평균 4.1%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지난 12월 1일자로 평균 4.1% 인하됐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12월 6일 수도권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을 12월분부터 m³당 1백40원73전에서 1백29원으로 8.3%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요금은 취사·영업용이 m³당 3백10원에서 2백98원27전으로 3.8%, 산업용및 냉난방용은 2백65원95전에서 2백54원22전으로 4.4%씩 내렸다.

이번 도시가스요금인하는 지난 6월의 평균 16.1% 인하에 이은 두 번째로 그동안의 원화절상에 따른 LNG도입가격의 하락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돌고래III 가스전

경제성 없어

지난해 12월초 대량의 천연가스

88년중 나프타공급가격 19%인하

12월에는 8.08% 올라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2월 1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을 8.08% 인상,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지난 11월의 l당 63원89전에서 69원5전으로 5원16전이 오르고, 稅포함가격기준으로는 11월의 l당 70원28전에서 75원96전으로 5원68전이 올랐다.

지난 11월중 국내나프타 평균가격은 日本 C&F(운임포함조건)가격으로 톤당 1백34달러50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0월의 1백21달러45센트 보다 13달러5센트가 오른 것이다.

한편 금년중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국제나프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평균 18.96%가 내렸다.

현재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 석유협회가 매달 日本 C&F 격의 전월평균가격(부대비용 포함)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내나프타가격 변동추이

(단위:원 / 리터, \$ / T)

	국내가격(세포함)	조정(%)	국제평균가격(日本C&F)
1987. 10	95.58	-3.59	161.79
1987. 11	101.68	6.39	153.42
1987. 12	95.67	-5.92	139.11
1988. 1	86.34	-9.75	141.92
1988. 2	87.31	1.12	151.81
1988. 3	91.61	4.93	143.08
1988. 4	84.24	-8.05	168.47
1988. 5	97.59	15.85	174.58
1988. 6	100.33	2.81	159.28
1988. 7	90.75	-9.55	142.27
1988. 8	80.61	-11.18	137.74
1988. 9	77.70	-3.60	128.73
1988. 10	75.56	-2.76	121.45
1988. 11	70.28	-6.99	134.50
1988. 12	75.96	8.08	-



가 분출돼 기대를 모았던 대륙봉 6광구 1소구내의 돌고래Ⅲ구조는 2개공의 평가정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동력자원부와 석유개발공사에 따르면, 蔚山 동쪽 1백km, 釜山 동북쪽 1백20km 지점에 위치한 돌고래Ⅲ구조의 가스田개발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과 7월말 2개공의 평가정을 시추한 결과 가스가 구간별로 약간 발견됐지만, 가스가 피어 있는 사암층이 얇고 분포지역도 좁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정 시추결과에 대한 정밀분석에는 美페트로브렌처사가 국내기술진과 함께 참여했다.

“석유산업규제 완화해야 한다” 이윤규제도 개선해야

정유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정제부문과 유통부문에서의 가격자율화를 실시하고, 정유산업에 대한 이윤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1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열린 석유산업규제완화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金在哲교수(한국과학기술원)는 「석유산업의 자율화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유가 뿐만 아니라, 수출입부문, 정제부문, 유통부문등 전부문에 걸쳐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책임경영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정유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우선 자율화의 첫단계로 정제부문과 유통부문에서 가격을 자율화시키고 정유산업에 대한 이윤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金교수는 구체적인 규제완화방안으로서 정유사들에게 경쟁과 경영개선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윤관리제도로서 기준이윤율을 정해 사후정산하고, 또 정유사간의 경영개선과 경쟁이 소비자단계에까지 이 전되도록 유통부문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율화초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현재 대리점단계에서는 비교적 경쟁이 치열하나 상류부문에서의 경쟁에 의한 이익은 주유소 단계에서 흡수되어 소비자단계까지

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1~3km의 지역제한을 좁혀 주유소의 숫자를 늘리고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추가적 진입규제의 완화나 철폐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교수는 또한 폴사인제도를 준수하고 자영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유통부문의 계열화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油公 蔚山공장 공장새마을분임조 경연대회

油公 蔚山공장은 지난 12월 9일 공장후생관 회의실에서 윤대옥공장장등 1백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공장새마을분임조 발표경연대회를 가졌다.

경연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땅벌분임조(실험실 실험1과)

◇우수상

▲철마분임조(운영부 육상출하과)

▲제일·코끼리하나(정제부 정제1과·저유1과 연합)

◇장려상=셋벌·새싹·샘물(정제부 정제2과·환경관리과 연합)

노력상

▲동그라미분임조(정제부 윤활유 생산과)

▲크라운분임조(정제부 윤활유 생산과)

油公 蔚山공장 무재해 3백만인시 기록

油公 蔚山공장은 지난 4월10일부터 11월29일까지 사고없는 날을 기록, 네번째로 무재해 3백만인시를 기록했다.

油公, 솔벤트취급 안전세미나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油公 용제영업부는 지난 11월1일부터 3일간 경주 코오롱호텔과蔚山공장에서 제12회 솔벤트취급안전세미나를 가졌다.

油公 蔚山공장
소방기술 경연대회

油公 蔚山공장은 지난 11월17일 공장내 소방훈련장에서 88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가졌다.

경연대회의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정비2과

▲우수상=올레핀1과, 기계과, 저유1과

▲장려상=운활유생산과, 아로마틱1과, 실험실, 정제2과

油公, 윤대옥공장장 감사패발아
육군 1266부대장으로부터

油公 蔚山공장의 윤대옥공장장은 지난 12월8일 군무원들의 공장견학에 협조한데 대한 감사로 육군 1266부대장 정승일중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蔚山공장은 지난 6월부터 12월 초까지 육군 1266부대 소속 군무

“가정연료 기름이 경제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가정연료비용 비교

최근 들어 석유류제품가격이 잇따라 인하됨으로써 가정에서의 연료 선택의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밝힌 단위열량당 비용지수에 따르면 연탄(1개 1백95원)을 100으로 볼때 ▲경유(1l 당 1백79원)는 154, ▲등유(1l 당 1백86원)는 165, ▲LNG도시가스(1입방미터당 3백2원)는 214, ▲LPG도시가스(1kg당 4백15원)는 268, ▲전기(가정용 평균 1Kw/H당 65원87전)는 596으로 각각 나타났다.

단위열량당 비용비교지수는 같은 열량을 내는데 각각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하는 것을 연탄값을 기준으로 나타낸 수치로 연료를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는 개념이다.

이 수치를 보면 아직 연탄이 가장 경제적인 연료지만, 설비의 열효율이나 가동시간등의 여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 李政璫홍보과장은 『경유나 등유의 단위열량당 비용비교지수가 200을 넘을 때는 연탄이 유류보다 경제적이었으나 최근에 인하조정된 가격에 의한지수(154~165)를 보면 유류가 더 경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름보일러등 유류를 사용하는 설비의 열효율이 연탄사용설비 보다 높고, 유류사용설비는 하루 3~4회씩 가동하면 되지만, 연탄은 하루종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유가는 올해에만도 세번에 걸쳐 모두 19.7%(소비자가격 기준)가 내렸다.

원 3천6백40명에 대해 모두 26회에 걸쳐 견학시킨 바 있다.

油公, 신입과장 교육
仁川 송도비치호텔에서

油公 인사부는 지난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 仁川 송도비치호텔

에서 신입과장교육을 실시했다.

87년 9월부터 88년 10월까지 승격된 신입과장 및 중도채용된 과장 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역할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油公, LPG판매요원 교육

大邱 파크호텔에서

油公 LPG판매부는 지난 12월2일부터 2일간 大邱파크호텔에서 88LPG판매요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油公, 油公가스, 대리점의 LPG판매요원 40여명이 참가했다.

油公, 주유소관리자 교육

의정부 다락원에서

油公영업연수원은 지난 11월13일부터 19일까지 의정부 다락원캠핑장에서 제2기 주유소관리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52명의 주유소장들이 참가했다.

油公, 마케팅교육 실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油公 영업개발부는 지난 11월7일부터 16일까지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88년도 마케팅교육을 실시했다.

2기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판매부서의 기간직 사원 99명이 참가했다.

具斗會 湖油사장

美國 칼텍스 본사 방문

具斗會 湖南精油사장은 지난 11월 18일 美國칼텍스 본사를 예방,



R. F. 존슨회장, H. R. G 위긴스 부회장, P. J. 워드수석부사장을 만나 회사 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湖油, 노조총회

8 대위원장에 배용하씨 연임

湖南精油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6일 총회를 열고 제8대 위원장에 배용하 현위원장을 연임시키고 사무장에 장만익씨를 선임했다. 배위원장과 장사무장의 임기는 3년이다.

湖油, 문풍길이사

화공학회 기술상 수상

湖南精油의 문풍길이사(기술담당)는 지난 11월 24일 무역회관 강당에서 열린 '88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원유 증류공정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공학회 기술상을 받았다.

湖南精油 麗川공장

154KV 변전소 준공

湖南精油 麗川공장은 지난 12월 7일 154KV 변전소 준공식이 변전소 현장에서 거행되었다.

총 3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년여만에 준공을 본 이번 공사는 그동안 공장확장으로 인해 전기시설

의 용량이 부족하였던 66KV 수전시설을 154KV 수전시설로 변경함으로써 한전 여수화력으로부터 안정된 전력을 공급받아 공장 BTX 증설공사와 삼남석유(주), 럭키유화(주)에도 전력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湖南精油 麗川공장

동계테니스대회 가져

湖南精油 麗川공장 테니스회(회장 : 박상조이사)는 지난 12월 11일 쌍봉사택 테니스 코트에서 동계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湖南精油 麗川공장

탁구대회 가져

湖南精油 麗川공장 탁구반(반장 : 나인수차장)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게실에서 '88 공장탁구대회를 가졌다.

湖南精油 麗川공장

바둑대회 가져

湖南精油 麗川공장 바둑반(반장 : 유정홍과장)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게실에서 바둑대회를 가졌다.

京仁에너지

88후반기신입사원 28명선발

京仁에너지는 88년도 하반기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을 통하여 대졸사원 20명, 고졸사원 8명이 경인의 새 식구가 되었다. 이들은 본사 및 공장에서 사내 교육을 먼저 받은 뒤, 그룹 연수를 통해 경인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京仁 仁川공장

소방기술 경연대회

京仁에너지 仁川공장은 지난 11월 10일 공장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날 윤상전 공장장은 대회를 통해 『원자재와 생산제품이 모두 가연성 물질인 본사의 특성상 항상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만큼 예방과 화재시 초기 소화를 위한 소방기술 습득에 전 사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회 결과 정비부(정유)가 우승을 차지 하였다.

京仁에너지 민일규사우

현혈운동 유공감사패 받아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비상계획부에 근무하는 민일규 사우는 지난 10월 27일 대한 적십자사 본부로부터 현혈운동 유공자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민 사우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72차에 걸쳐 현혈을 하여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京仁에너지 산악회

지리산 산행

京仁에너지 본사 산악동호회는 11월 12, 13일 양일간 지리산으로 추계 산행을 다녀왔다. 여성 회원이 다수를 점한 무박 2일의 야간 산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이 천왕봉 정상에서 가을산이 주는 깊은 맛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京仁에너지 테니스회

삼일코트서 테니스대회

京仁에너지 본사 테니스동호회는 12월 3일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삼일 테니스 코트에서 88년도 SEASON-OFF 대회를 가졌다. A, B 두개조로 나누어 치루

어진 경기의 결과, 각조의 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A조=윤석태·한영교 ▲B조=권태연·심영보

京仁 仁川공장 축구동호회

축구대회 가져

경인에너지 仁川공장 축구동호회는 지난 11월26일 발전소 운동장에서 본토팀대 울도팀의 대항전을 개최하였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심하게 불었으나 따뜻한 마음으로 혼훈한 우애를 나눔 기회였다.

극동정유 새 심벌마크 제정

한방울의 깨끗한 기름,
깨끗한 지구를 상징화



기름과 깨끗한 지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極東精油가 추구하는 청결에너지와 함께 앞으로 영원히 이어갈 기업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다.

極東精油는 하루 6만배럴을 처리할수 있는 원유정제시설과 국내최초의 중질유 분해시설을 갖추게 될 大山공장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유황성분이 제거된 보다 깨끗한 경질유생산을 통한 환경오염방지에 기업의지를 두고 있다.

極東精油는 社名변경에 이어 새로운 심벌마크를 제정했다.

새 심벌마크는 한방울의 깨끗한

雙龍精油, 대통령표창 수상

88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雙龍精油는 지난 11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8년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에서 李鳳瑞동자부 장관으로부터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雙龍精油는 건설 당시 에너지절약형 공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81년부터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를 위하여 전산제어 시스템 도입 및 고급 통계적 분석기법 등을 통한 공정별 특성과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추이를 분석·공정별 변동원 단위 관리체제를 자체 확립하고 효율저하 요인의 과감한 개선및 획기적인 시설투자를 적기에 단행함으로써 81년에 비해 21%의 에너지절감을 시현하였다.

雙龍精油, 인성계발 교육 실시

洪思德씨 초청강연

雙龍그룹 중앙연수원은 12월 14일 18층 강당에서 그룹사임직원을

위한 인성계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치평론가인 洪思德씨를 초청, "진정한 민주발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에 대한 주제강연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동안 진행됐다.

雙龍精油

사계절 휴양시설 운영

雙龍精油는 복지회사 구현의 일환으로 '88년 11월부터 사계절 휴양시설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雙龍精油는 전국 각지에 15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확보하고 임직원들의 가족단위 휴양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세대당 연 1회(3박4일 기준)사용이 가능하다.

極東精油 산악반

설악산 산행

極東精油 산악반은 지난 12월 17, 18일 양일간 설악산으로 겨울산행을 다녀왔다.

極東精油 불링부

63불링장에서 불링대회

極東精油 불링부는 지난 12월 10일 하오 여의도 63빌딩내 63불링장에서 불링대회를 갖고 계열회 시간의 화목을 다졌다.

이번 대회에는 極東精油 2팀, 세일석유 1팀, 도시가스 1팀, 외에 셀정유 1팀이 찬조로 참가했다.

極東精油, 송년바둑대회

결산총회도 가저

極東精油 바둑부는 지난 12월 10일 본사(세양빌딩 2층) 바둑실 및 회의실에서 결산총회 및 송년바둑대회를 가졌다.

極東精油

신입사원 41명 선발

極東精油는 금년도 하반기 공채를 통해 대졸신입사원 37명 및 고졸신입사원 4명을 선발,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현업부서에 배치했다.

